

장흥군, 희망가꾸기 31호 주택 탄생

12개 기관단체 후원...화재 피해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택신축

정중순 군수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고 행복한 삶 위해 노력”



장흥군은 11일 부산면 심천마을에서 희망가꾸기 31호 주택신축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희망가꾸기 31호 주택은 지난 7월 화재로 인해 주택이 전소되어 오갈 곳이 없어 창고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

인가정을 위해 지어졌다. 장흥군 희망복지지원팀은 EBS 나눔0700에 방송모금을 요청하고,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화재복구비와 주택신축 매칭 그랜트 지원사업 사업비를 지원받아 17평의 주택신축을 시작했다. 신축을 위해 부산초 45회 동창회,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장흥종합사회복지관, 부산면 자율방범대, 부산면 번영회에서 후원에 참여했다. 장흥지역건축사회 예담건축사에서 설계 및 인허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측량, ㈜탐진안전건설에서 철거 및

건축과정에서 재능기부 해주어 사업비 5,300만원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주택이 마련됐다. 준공식을 축하하며 장흥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청소기, 부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불을 선물했다. 새집의 주인이 된 김모씨(55세, 남)는 “집이 모두 불타 버려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했는데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주셔서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희망가꾸기 31호 주택신축을 도와주신 복지재단과 많은 기관단체에 감사드린다. 장흥군은 군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위지훈 기자



정부시범사업 중증장애인 극단선택 “실적 못채워 최저임금도 못받아”

지난 5일 여수에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해 일하던 설요한씨(25)가 동료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장애인단체가 정부의 시범사업이 과도한 노동을 강요했다며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설요한씨 장례식을 열고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의 골레였다”며 “중증장애인 기준에 맞는 공공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설요한씨는 뇌병변3급으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후 정부에서 마련한 시범사업에 지원했다. 이후 그는 4월부터 사망 직전까지 여수의 장애인 관련 센터에서 동료상담가로 재직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나온 장애인 200여명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도로에 모여 설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주먹을 굳게 쥐었다. 설씨와 함께 지원가로 활동한 동료 이창준 전남장애

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연단에 서서 눈물을 참지 못하며 한참을 울다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설요한 씨와 고민을 같이 이야기했던 동료”라며 “그는 월 60시간 일을 했지만 (실적을 채우지 못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고 슬퍼했다. 전장연에 의하면 설요한씨는 월 60시간동안 일했고 65만9650원의 월급을 받았다. 또 한달에 4명의 다른 중증장애인 참여자를 발굴하고 동료지원활동 참여자 1명을 한달에 5번 만나서 취업의욕을 고취시켜야 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임금을 반납해야만 했다. 전장연은 “지자체에서 12월에 지역장애인공단에서 중간검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설씨는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생애 마지막 날에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남겼다”고 전했다. 전장연은 “설요한 씨를 죽음의 시스템으로 몰아넣은 진짜 주범은 기획재정부”라며 “고용노동부가 기획재정부와 함께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기준의 공공일자리 1만개 계획을 제출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남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오늘까지 참여자·민간위탁수행기관 모집

주민복지과로 방문접수 해남군은 12월 13일까지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민간위탁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일반형(전일제, 시간제) 일자리와 민간위탁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복지형 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으로 운영된다. 사업 참여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이며 일자리사업 유형 및 직무 내용에 따라 행정기관(군, 읍면사무소), 민간위탁수행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일반형 일자리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복지형 일자리와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의 위탁수행기관은 사업수행능력·유사사업 추진경험 및 담당인력 유무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서를 종합심사 후 선정한다. 신청은 해남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일자리사업 유형별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13일까지 해남군청 주민복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해남=서명환 기자



“함께여서 더 행복한 세상, 우리 함께해요”

무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나눔의 날’ 실시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철)은 12일 관내 유.초.중.고 교직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등 약 150여명을 모시고 영재교육원 2층 대강당에서 ‘함께여서 더 행복한 세상, 우리 함께해요!’ 라는 주제로 특수교육지원센터 ‘나눔의 날’을 개최했다. 2019. ‘나눔의 날’은 무안교육지원청 소속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님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단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I will follow him’ 외 3곡을 연주하였다. 2015년 9월에 창단한 무안 어울림오케스트라단은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 42명으로 구성되어, 매주 토요일 2시간 동안 음악 기초이론 교육과 개인 악기 레슨, 합주 및 파트 연습, 문화체험학습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야호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Together 광산구